

금주의 칼럼

나그네 인생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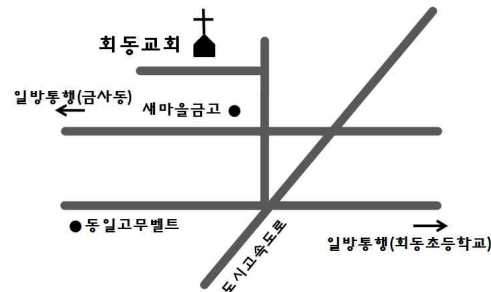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고 쓰여 있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5장
교 독 문	9문 (시편 15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502장
기 도	강병옥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1: 35-42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안드레의 전도
찬 송	498장 / 특송: 전철민*신지희
봉 헌	봉원위원/ 봉헌기도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46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3 . 1 / 제 48-09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배영조목사

작은 십자가 찬양인도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395장/ 397장
 기 도: 오세영집사 (다음: 이성희집사)
 성 경: 시편 61: 4-8
 특 송: (다음: 1구역)
 말 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3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김수안(온천) 박영수(재송)
안 내 / 식 당	이봉순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1일) 2주(8일) 3주(15일) 4주(22일) 5주(29일)
기 도	3,4구역 5,6구역 7,8 구역 9,10구역 1,2구역
주 일 예 배	강병옥 최진수 오정수 강병옥 최진수
주 일 오후	오세영 이성희 신광수 이순점 이은심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옥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부: 최문호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3월 안내: 3월 행사 봉사 당번 나갑니다. 주보 참조 바람
- 제직회: 1/4분기 정기제직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제직회원 참석
시간: 점심 후 1시 5분 장소: 본당
- 구역모임: 3월부터 구역모임 열심히 모임입니다. 구역공과 주보에 나감
- 교회창립: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행사: 3월8일(주일) 창립기념행사, 4여전도회 주관 찬양과 율동 / 기관별 대항
- 행사안내: 1) 경배와 찬양: 3월 15일
2)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3월 15일
3) 동래시찰회: 3월 4일(수) 오전 11시 내성교회당
4) 전도팀전도: 3월 11일부터 시작함
5) 특송: 주일오후 특송 3월 22일부터 시작 1구역부터
6) 대심방: 3월 24일부터 시작 화,수,목,금(1-4구역)
7)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한 주간
- 교우소식: 1) 장례: 전정명장으로 소천, 26일에 장례치름
특송: 전철민 *신지희 집사(오전에배시)
2) 퇴원: 김충공집사, 수술 후 퇴원함.

결혼: 최문호군(최진수*김미연) 결혼. 3월7일(토) 오전 11시
국제신문 4층,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

3 월 행사 안내

* 삼일절: 3월 1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3월 15일
* 교회창립 기념주일: 3월8일	* 전도팀 전도: 3월 11일부터 시작
* 제직회: 3월 첫째주	* 대심방: 3월24일부터 실시(연합대심방)
* 기관별대회: 찬양,율동/ 3월8일 4여전도회주관	* 총회사모세미나: 3월 16-18일
* 동래시찰회: 3월 4일, 내성교회당	*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 경배와 찬양: 3월 15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시작: 3월부터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공재영 김복덕 이성희(여) 오세영 이봉순
이성희*강승경 김은수*김은숙 이현정 정재호
- ◆**감 사:** 강병옥*박옥주 공재영 김승하 김은수*김은숙
배영광 오세영 주경찬
- ◆**선 교:** 권사회 3여전도회 김경애 배영조*김옥단
정재호*최준경 김장우*전만주 김복덕
김세울*백순귀 오세영 김영숙
- ◆**건 축:** 김경애 김세울*백순귀 오세영 김복덕 김영숙
김장우*전만주 배영조*김옥단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매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3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0,000	710	박영수
2	강형순				1840	
3	이은심				1600	
4	백운자				2535	
5	김경애				1415	
2교구						
6	이봉순				650	
7	박광자				1230	
8	이현정				2712	
9	전만주				1941	
10	김종섭				400	

생명의 양식

03-1 후반이 더 좋은 가정((3) 롯기 4:13-17 구역 공과

2.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후반에 더 좋은 가정이 됩니다.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곡식을 베는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줍습니다. 볍은 곡식을 얻어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함으로 궁금증을 다 풀어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롯을 위하여 자상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보아스라는 신사와 맺어주기로 결심하고 성사를 시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상처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배려할 여유가 있을리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존경하고 아깁니다. 서로 기쁨을 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후반에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 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웃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엌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오' 하면서 물 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는 '나잇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